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김동영



예상은 불행하게도 빛나지 않았다.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23일 폐막을 앞두고 있지만 대선 정국에 휩쓸려 민생은 실종되고 있다.

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대표적 법안이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서남권 특별법)과 F1(포틀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F1 특별법),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 지역현안 법안 외면 말라

서남권 특별법은 한나라당 일부의 반대와 연안개발 특별법과의 연계처리 주장에 발목이 잡혀 있다. F1 특별법은 지역인들의 의견이 다른데다 경주역사도시 특별법과의 연계처리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법률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정치권의 책임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최대 현안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달라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남권특별법 등 장기 표류

광주시와 전남도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회기는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광주·전남의 주요 현안사업을 뒷받침할 주요

지역현안 법률안을 다룰 상임위에서의 사실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은 다음주 중에 법률심사소위와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관련법안을 의결한 뒤 23일 본

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연말 대선과 내년 4월 총선 등의 정치일정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곳없이 상대방 대선후보 흡입대기에 '을인'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민생국회'는 없고 '검증국회'만 판을 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겠는가.

부실국회 관행 벗어나야

국회는 대선이 있는 해마다 파행 운영을 거듭해왔다. 올 정기국회도 '부실국회'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

정치권에 '상식'과 '합리'의 정치를 주문하는 것도 이젠 지쳤다.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새해 예산안 등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토론과 법률안 심의를 외면한 채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대선이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정치가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서는 안된다. 후보 검증이나 정쟁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에 벌여도 늦지 않다.

논설실장 dykim@kwangju.co.kr

시설

여수엑스포, 막판 유치노력에 달려 있다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개최지는 오는 27일 새벽 결정된다. 두 번째 도전장을 낸 여수의 운명이 판가름나는 것이다.

정부는 6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여수 세계박람회 정부유치지원위원회회를 열고 최종 전략을 점검했다. 남은 기간 총력을 기울여 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결의다.

막판 민·관 총력체제는 매우 중요하다. 유치를 성공하려면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전 회원국 대표의 3분의 2가 참석한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투표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유치 노력과 함께 결선투표에 대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략은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한 평창이 주는 교훈이다.

세계박람회 유치전은 국력의 경연장이다. 국가마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3대 국제행사로 자리잡은 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담조직을 꾸리는 등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유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광주와 전남지역 주민들은 '두 번의 좌절은 없다'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동네 상권 장악한 대형 유통점 대책 없다

대형 유통점들의 광주지역 동네 상권 잠식이 본격화되고 있다. 오는 14일 삼성테크노 홀플러스 하남점이 광산구 하남동에 개점됨으로써 광주 시내 대형 유통점은 15곳으로 늘게 됐다.

대형 유통점이 이처럼 우후죽순적으로 들어서면서 지역 상권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동네상권까지 잠식되고 있다.

대형 유통점이 이처럼 우후죽순적으로 들어서면서 지역 상권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동네상권까지 잠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 노하우나 자금 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중소 상인들은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유통산업은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파이를 나눠 먹는 제로섬 게임과 비

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형 유통점의 진출은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지방상권의 위축은 서민들의 생계수단을 빼앗고 실업자를 증가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것도 지역 중소 유통점의 몰락이 한 원인이다.

동네 상권까지 빼앗는 대형 유통점의 무분별한 진출은 막아야 한다. 특히 소비성향의 유통업이 거침없이 성장할 경우 지역 산업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편칼럼

박홍근



도시는 인간의 삶을 담은 큰 그릇이다. 활동하기에 편리할 뿐 아니라 쾌적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도시의 아름다움 경치, 즉 경관을 만드는 것은 자연적인 요소와 인간의 활동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요소가 작용하여 지역의 통일된 특성으로 나타난다.

도시의 인공적 경관요소들은 건축물의 미관, 옥외광고물, 도시의 색채, 도시구조물, 공공시설물, 녹지, 광장, 야간경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은

기고

정일영



마침내 오는 8일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한다. 1994년 최척지역으로 선정되고 1999년에 착공한 무안공항은 오늘에 이르기 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주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도 적었다. 그러나 무안국제공항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항공네트워크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이제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는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도시간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국제공항다운 공항은 도시의 경쟁력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다.

도시의 경관, 공공의 꽃이다

모두 독립적이지 못하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건만 그중 건축물의 미관은 도시경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특한 자연 경관에 인공의 경관요소를 잘 가꾸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요소들 간의 종합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간과하고 순간순간의 필요에 의해 어떤 요소들을 만들어 낸다면 어색한 도시경관만 재현될 것이다.

건축물은 스스로 존재하지만 혼자서는 그 자체를 아름답게 할 수 없다. 건축물의 미관은 주변과 함께 상호작용에 의해 완성이 되어지고, 녹지(공원이나 가로수 등)와 광장, 도시구조물과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간판)과 색채, 그리고 잘 디자인된 현상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네 도시의 좋은 경관은 공공의 꽃이다. 앞으로 우리가 꽃 속에서 생활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건축사·2004년 12월 수상자〉

은편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자에 수여하는 '은편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아이들 이용한 학원 상술 눈살

얼마 전 오후 8시에 보습 학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초등학생인 자녀의 이름을 대며 학원을 바꿔서 보내라는 것.

옹 아이들을 준다고 해서 알려주었다고 한다. 저학년 아이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Nunes 학원 홍보를 해서야 되겠는가.

에너지 낭비·환경오염 주범 대형버스 공회전 단속을

자동차 공회전을 법적으로 막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 운전자들이 공회전을 하고 있다. 특히 공회전 사각 지대는 공용 버스들이다.

형 버스가 공회전으로 인해 연료를 낭비해 서야 될까. 주거지역에서 차량의 공회전을 5분 이상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단속하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마당에 대

형 버스가 공회전으로 인해 연료를 낭비해 서야 될까. 주거지역에서 차량의 공회전을 5분 이상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단속하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無等鼓

한국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도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두 나라 모두 여러 변수들이 산재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탄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힐러리는 50%라는 지지율 문턱을 이미 넘어섰다.

BBK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와 범여권 후보단일화에 관심이 쏠려있었으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출마라는 돌발변수가 출현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바마 의원이 최근 발표한 선거자금 기부자 목록에 13세, 9세 어린이는 물론 2세 유아의 이름도 올라 있어 화제다.

올초부터 과열양상을 보여온 미국은 민주당 힐러리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간 대결구도로 좁혀진 형국.

많은 돈을 기부하기 위해 가족들의 이름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힐러리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간 대결구도로 좁혀진 형국. 그러나 여성이라는 힐러리의 약점과 아직 마음을 열지 않은 미 보수층, 이라크전쟁 등 급변하는 변수들이 남아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워싱턴 포스트는 "모든 후보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며 "많은 돈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영·유아 기부자인 '기저귀 부대'를 등장시켰다"고 꼬집었다.

현재 힐러리의 독주 체제여서 민주당의 백악관 재탈환과 최초 여성 대통령

의 백악관 재탈환과 최초 여성 대통령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가)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